

# 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 앞장

### 국토부,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 사례 8건 소개... NPS 출장 세탁 서비스·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 등

전북지역 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12일 전라북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2022년도 혁신도시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지원 우수사례집'을 혁신도시 누리집에 공개했다. 사례집에는 전북지역 우수사례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8건이 소개됐다. 우선 국민연금공단은 취약계층 자립·자활을 위한 NPS 출장 세탁 서비스 지원했다. 공단은 김제지역 자활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일

주일에 두 번 세탁물을 수거해 직원 복지 혜택과 자활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자체예산 1억 원을 들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경제기업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기업의 성장 가능성과 사업성을 평가하는 공모 사업을 전북경제통상진흥원에 위탁해 도내 지역기업 자립기반 조성 등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한국국토정보공사는 6천 8백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구매조건

부 사회적 경제 제품디자인 개선 사업을 펼쳤다. 지역 내 기업 상품을 개선하고 사회적 경제제품 포장디자인 개발과 제품 향상 등을 지원했다. 특히, 7개 이전기관은 전북혁신도시형 공유경제 사회적협동조합을 설립했다. 혁신도시 이전기관의 참여를 통해 기존된 물품들은 재판매해 재로웨이 트슈프 구축을 위한 자금으로 활용하며 지구살림과 중고물품 거래하는

도깨비 마켓, 나눔장터를 운영했다. 공유물품 1,802건을 판매하고, 72건을 대여하는 등 공유경제 활성화 정책에 크게 기여했다. 이찬준 전북도 지역정책과장은 "지역 상생에 함께 해준 전북지역 이전 공공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전북도는 지자체, 공공기관과 힘을 합쳐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전국 제일의 혁신 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내가 도지사라면 정책 아이디어

### 도, 10개 우수 아이디어 선정... 정책 반영 계획

전북도는 12일 '내가 도지사라면, 하고 싶은 한가지'를 주제로 청원 대상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해 우수 아이디어 10건을 선정했다고 전했다. 이번엔 추진된 '내가 도지사라면' 아이디어 공모는 지난 9월 전북도 팀장들을 대상으로 한 '팀별 벤치마킹 아이디어 경진대회'에 이어 직급에 상관없이 전 청원을 대상으로 이뤄졌는데 의미가 깊다. 도는 10월 13일부터 11월 4일까지 청원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총 206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한데 이어 제안된 아이디어 소관부서의 의견을 수렴한 후 14명의 실국장이 블라인드 1차 서면 평가를 통해 20건을 본심사 평가대상으로 선정했다. 이날 열린 본심사에서는 아이디어를 제안한 직원이 직접 발표하고, 행정·경제부처, 실국장이 과제의 중요도 및 난이도, 실현가능성, 창의성 등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해 최종 10건의 우수 아이디어를 선정했다. /김경수 기자

최종 선정된 10개의 아이디어는 △'가든스 바이 더 베이'처럼 빛과 음악이 있는 산림가든 조성 △8자녀 이상 등하원 도우미비용 전액 지원 △새만금에 세계적 건축가의 랜드마크타워 건설, △세계문화유산박람회(EXPO) 유치(호남·영남의 정신 문화를 한자리에)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대규모 국제 이벤트 유치), △시군 군무경력 없는 도청 직원 읍면동 파견 △실내는 혁신의 어머니! '실내박물관' 건립, △인사 낭만마켓 (플랫폼) 구축 △전북형 융합상품 개발과 중소기업 군단 육성 △창원이 머무는 전북! workation 전북! 등이다. 조봉업 행정부처장은 "지난 9월 팀장들이 발표한 벤치마킹 아이디어에 이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많이 발표되었다"며, "최종 선정된 10건은 물론 어렵게 선정되지 못한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 등을 검토해 적극 반영해 나갈 것"을 함께 지대한 실국장에게 주문했다. /김경수 기자

## 고창군, 전국 원전 인근 지역 동맹회의 참석·결의문 발표

### 노형수 부군수 "군민안전 무시한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결정 유감"

전북 고창군이 전국 원전인근 지역 동맹 정례회에 참석해 "군민 안전을 무시한 한빛원전 4호기의 재가동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2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날 노형수 고창부군수는 '전국 원전인근 지역 동맹' 2022년 정례회에 참석했다.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은 2019년 10월 설립돼 원전 인근 지역 16개 기초지자체, 314만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표하고 있는 단체다. 이날 노형수 부군수는 정부의 한빛원전 4호기 재가동 결정에 강한 유감을 나타냈다. 노 부군수는 "고창군은

한빛원전 최인접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과 지방정부 의견도 묻지 않고 일방적으로 재가동을 결정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 원전동맹도 역시 결의문을 통해 "원전 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원자력안전교부세의 신속한 국회 통과 등도 촉구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현재 방사선비상 계획구역에 관리하는 지자체에는 주민 보호 책임만 있을 뿐 어떠한 지원과 보상도 없는 실정이다"며 "원전



관련 인근지역 지자체에 대한 예산지원을 위해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 도내 취약계층 돕는 성금 기탁 잇따라

### 전북도한사회, 성금 1000만원 차매노인 20명에 지원 전북도여성단체협의회, 성금 2000만원 취약계층 전반에 기부

연말을 맞아 취약계층을 돕는 나눔 성금 기탁이 잇따르고 있다. 전북도는 12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안상호 전라북도한사회 회장, 온정이 (사)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 회장, 유병설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도내 취약계층 지원 성금 기탁식을 가졌다. 전라북도한사회는 950여명의 회원

이 조곡씩 마련한 1천만원의 성금을 기탁해왔고 이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도내 저소득층 차매 노인 20명에게 각각 50만원씩 생계비로 지급될 예정이다. 전북도여성단체협의회는 21개 도 단위 단체와 14개 시군 단위 단체가 함께 지난 10월 개최한 사랑나눔잔치를 통해 발생한 수익금 등 2천만원의 기탁하기로 했다. /김경수 기자

## 칭다오 전북도민회, 겨울 김치 담그기 행사... 어려운 이웃에 김치 나눔

### 전북도 중국사무소, 달력·김치통·앞치마 후원으로 도민회 활동 지원



한국의 전통음식 김치 담그기 행사가 중국 칭다오에서 열렸다. 전북도민회(회장 문제신) 회원과 가족 전라북도중국사무소는 지난 10일

중국 산둥성 칭다오에서 칭다오 전 북도민회(회장 문제신) 회원과 가족 30여 명이 2022년 겨울 김치담그기

행사를 가졌다고 전했다. 도민회원들은 필요한 양의 배추를 도민회에 신청하고 저마더의 가공에

따라 만들어진 갖은양념을 버무려 김치를 담갔다. 도민들은 먼 타지에서 감칠맛 나는 전라도 김장김치의 전통을 칭다오에서 이어갔고, 정성을 담은 김장김치를 양로원과 어려운 이웃에 전달하는 등 지역사회에 대한 봉사도 잊지 않았다. 코로나 방역 정책으로 행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전라북도중국사무소는 2023년 달력, 김치통, 전라북도 로고가 새겨진 앞치마를 후원하는 등 도민회 활동을 간접적으로 도왔다. 정순택 중국사무소장은 "도민회의 활발한 활동을 환영하며, 중국에서도 김치를 잊지 않고 우리의 문화를 계속 이어가는 행사가 있다면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수 기자

## 연말맞아 뷔페 등 대형음식점 집중단속

전라북도(특별사법경찰과)는 연말 송년회 장소로 자주 이용하는 뷔페 및 호텔식당 등을 대상으로 12월 30일까지 위생 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다가오는 성탄절과 연말연시에 각종 모임 증가에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위생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대상은 뷔페 및 호텔식당 등 대형음식점 60여 개소다. 중점 단속사항은 조리장 청결상태,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판매 여부, 비위생적 식재료 사용 여부, 영업자 및 종사자 건강진단 여부 등이다. 이와 함께 음식물 재사용 기준 준수 여부도 철저히 살필 계획이다. 단속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 조치 및 교육을 중대하고 고의적·악의적 불법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강력히 조치할 예정이다. 신병기 전북도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철저한 위생관리로 도민에게 보다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수 기자

정읍시 광고 제2022 - 1690 호

###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안) 주민의견청취 열람공고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및 「도시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열람공고 합니다.

1. 정읍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조서 및 사유서  
가.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규모	목적	기능	연장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건설일	비고
신설	소로	2	A	9	국지 도로	79	농소동 730	소로 1-49	일반 도로	-

나. 도로 결정 사유서

구분	도로명	변경내용	건설사유
신설	2-A	노선 신설 폭원: 9m, 연장: 79m	주택건설사업을 위해 도로 신설을 통해 교통개선 및 보행자의 안전예방과 체계적·계획적 관리를 위해 도시계획시설(도로)를 결정 하고자 함

나.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조서: "침몰생략"

2. 열람기간: 신문게재 다음날로부터 14일간

3. 공람장소 및 의견제출장소: 정읍시청 도시안전과 도시생태과

4. 기타사항: 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의견제출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도시생태과(063 539 57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년 12월 13일 정읍 시장

#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